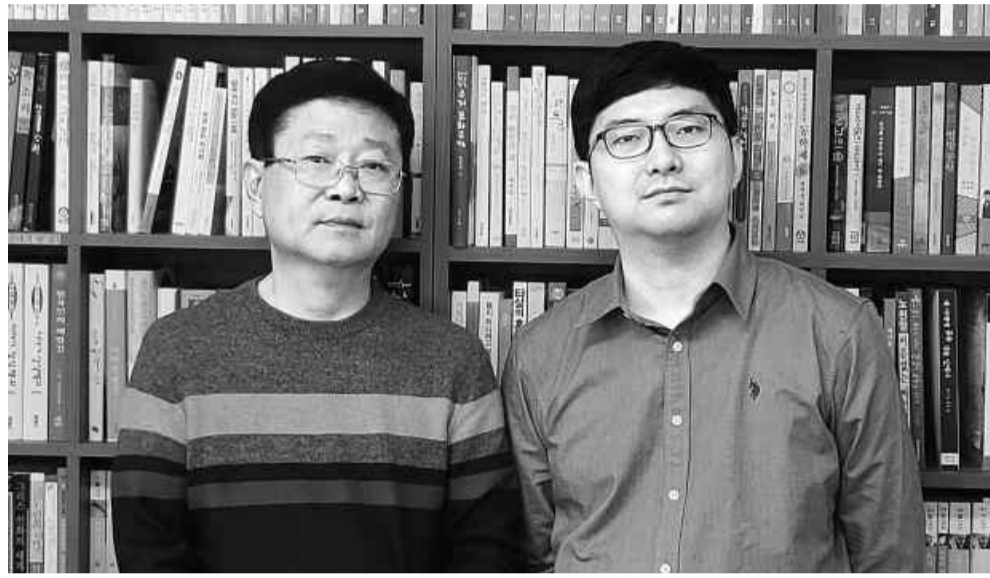


강경호·강나루 시인父子

같고도 다른 '문학의 길' 함께 걷조

미술 전공 후 시인 등단한 아버지
책 읽던 아버지 보고 자란 아들
각자 서로 다른 '작품세계'
평론·에세이집 등 6권 발간
오늘 DJ센터서 출판기념회



'시와사람' 대표 강경호 시인(왼쪽)과 강나루 시인



부자가 펴낸 6권의 책

부전자전(父傳子傳), 여전모전(女傳母傳)이라는 말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대를 이어 아버지, 어머니 못지않은 활동을 펼치고 있어서다. 허재 삼부자와 이종범·이정후 등에서 보듯 스포츠에서는 이미 많은 스타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의 뒤를 이어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확연하게 다른 장단점이 있다. 앞선 세대가 거쳐야 했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앞선 세대의 성과를 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존재한다.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다. 자칫 부모의 그림자에 묻히기 쉽다. 소설가 한승원, 한강의 사례에서 보듯 딸이 아버지에 비견할 만한 문학적 성취를 일구기도 한다. 물론 그것을 계량화하고 수치화하기는 힘들다. 전적으로 문학은 독자와 평가자들이 내리는 가치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발행되는 시 전문지 '시와사람' 대표 강경호 시인과 강나루 시인. 기자는 최근 두 부자를 만났다. 6권의 작품집을 펴냈다는 소식을 접했던 터라 기대가 들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왜 아들이 어려운 문학의 길을 가려고 할까'라는 걱정 아닌 걱정이 앞섰다. (오늘의 문학은 젊은 시절의 치기나 결기만으로는 결코 도전하기가 쉬운 분야는 아니지 않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책 읽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늘 방에서 책이 둘러싸여 독서를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가장 친숙한 장면 가운데 하나였어요."

아들 나루씨는 지금도 책을 읽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하다고 했다. 아버지보다 키가 큰 나루씨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버지와 닮았지만 아버지와는 다른 이미지가 배어 나왔다.

"애들이 모두 세 명인데 공교롭게도 문화예술계통의 일을 하고 있어요. 각기 적성과 재능에 따라 광고와 디자인, 문학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요. 저와 애들 엄마의 영향이 없었다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저마다 자신들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의미있는 성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경호 시인의 말이다. 그는 대학 때 미술을 전공했다. 문학에 대한 꿈을 버릴 수 없어 대학원 석사 과정은 문학을 전공했고 시인으로 평론가로 등단했다. 큰 아들 나루 씨가 자신의 뒤를 이

어 시인으로, 에세이스트로, 동화작가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사실이 대견했다.

이번에 펴낸 책들의 면면만 봐도 상당한 공력이 느껴진다. 강경호 시인은 두 권의 평론집을 냈다. '서정의 양식과 흔들리는 풍경', '미술의 상상력을 통한 시적 발화'가 그것. 나루 씨는 '갑자가 눈을 뜰 때' (시집), '백화점에 여우가 나타났어요' (동시집), '낮은 대문이 내게 건네는 말' (에세이집), '휴머니즘과 자연의 수사학' (평론집)을 발간했다.

6권의 책을 엮어내기까지 두 부자는 사이 좋게 경쟁을 했을 것 같다. 그러나 창작을 하고 연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결실임을 전제할 때, 이번 6권의 책들은 모두 귀하게 다가온다.

이에 대해 나루 씨는 "앞으로의 문학의 자장은 특정한 경계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다. 문학 장르 간 융합뿐 아니라 다양한 도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특정 장르를 고집하지 않고 창작과 연구활동을 펼쳐보고 싶다"고 말했다.

강경호 시인의 평론집 '미술의 상상력을 통한 시적 발화'는 미술과 작품을 모티브로 하는 점이 눈에 띈다. 세부적인 연구 내용도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과 김형술·조만섭의 시', '밀레의 그림과 최승철·추영희의 시', '이중섭의 그림과 구

상·김광림·이수익의 시', '클립트의 그림과 김은숙·정선우의 시' 등 보편적이면서도 특수성이 조화를 이룬 주제들로 채워져 있다.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미술을 포기하고 문학의 길에 든 지 오래 되었다"는 강경호 시인의 말에서 그가 여전히 미술에 운명적인 '관'을 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끈은 그에게 "미술작품의 상상력과 미술작품을 통해 어떻게 시적 발현을 하는지를 연구하게" 하는 추동력이 될 것이었다.

"미술 작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과 예술세계에 대해 비중을 두었습니다. 미술가들의 삶과 예술적 상상력이 시인들에게 영감과 시적 발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지요." 나루 씨의 첫 시집은 체험에 기반한 치열성이 눈에 들어왔다. 이은봉 시인은 이를 가리켜 "체험에서 비롯되는 이미지사유, 곧 사물성에 기초한 상상력이 풍부하게 드러나 있어 크게 주목된다"고 평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두 사람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각자 서로의 길을 간다는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게 있는지 몰랐다. 한편 두 부자의 출판기념회가 20일 오후 4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델리하우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예술인들의 '달빛동맹'

21~23일 영호남민족예술대동제...광주민예총, 개막전 등 참여

영호남 예술인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대동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민예총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영호남의전당 일원에서 영호남민족예술대동제를 개최한다. 이번 대동제는 부마항쟁의 부산과 5·18항쟁의 광주 예술가들은 민족예술이 지닌 창조적 발전 가능성을 후세대에 전달하고 민족, 평화, 인권 가치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광주 민예총은 개막전을 비롯해 통일문화제, 미술인교류전에 함께 한다.

2022광주민족예술제 개막작이었던 '물의 노래'가 이번 대동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광주민예총 소속의 내뱃소리민족예술단을 비롯해 한천굿사랑한사람예술단, 빛고을풍물두레물들꽃이 협연한 작품이다.

미술인 교류전에는 광주민미협(김우성, 박성완, 바다, 김병택, 심홍재)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프라인전시와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NFT 전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529-1156. /박성천 기자 skypark@

권 있고 살가운 전라도말 잔치

22일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서 전라도말 자랑대회...11개팀 경쟁

광주역사민속박물관(관장 신현대)과 월간 전라도닷컴(발행인 남신희)이 함께 여는 '제10회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내 '거시기홀'에서 열린다.

표준어에 밀려 위축되고 사라져가는 변방의 말이 아니라, 전라도 사람의 삶과 정신을 담은 소중한 언어로서 전라도말을 귀하게 대접하고 푸지게 치리는 잔치가 될 이 대회는 2011년부터 개최돼 왔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11개 팀이 무대에 올라, 권있고 살가운 전라도말을 풀어낼 예정이다. 대상인 '질로 존상' (상금 100만 원) 의

'영판 오진 상' '오매 오진 상', '팽야 오진 상' 등 수상자 전원에게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한복을 가장 곱게 차려입은 방청객 1명을 뽑아 '옷 맵시 상'도 수여한다.

마당극 배우 지정남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 함께 하는 방청객은 '경품 응모 행사'와 '전라도말 퀴즈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철과일, 유기농 쌀 등 푸짐한 선물을 증정된다. 더불어 국악 퓨전그룹 '도도소리'의 흥겨운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 광주역사민속박물관 062-613-5367, 전라도닷컴 062-654-9085. /김미은 기자 mekim@

올 마지막 광주프린지페스티벌

22일 민주광장...무용·디제잉 댄스 퍼포먼스 등 다채



광주의 대표 거리예술축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5회 차 행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5회차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민주광장에서 펼쳐지며 '시민, 예술에(愛) 물들GO!' 슬로건처럼 다채로운 장르를 만날 수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봉앤줄의 '스러지다'를 비롯해 코드세시의 '해원(解願)', 서남재의 '폴로세움' 등이 펼쳐진다. 또한 허경미무용단-무무의 '진화-Parade of Life', 발광엔터테인먼트의 '해도난장' 등의 작품이 시민들을 만난다.

메인 무대의 피날레는 광주 댄스연합팀의 디제잉

댄스 퍼포먼스 '예술에(愛) 물들GO'가 장식한다. 현대무용, 댄스스포츠, 스트릿댄스 등 서로 다른 댄스 장르가 한 무대에서 시민들과 함께 융합하여 즐기는 퍼포먼스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됐던 분위기를 떨치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자는 취지다.

한편 올해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지난 6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5개구 10개 거점공간을 찾아가는 거리예술축제 '우리동네 프린지'를 10회 개최했다. 이후 9월 말부터 10월까지 5·18민주광장에서 모두 5회 행사를 열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출시 기념 20% 할인 한정판에 ★

"남도맛기행" 먹거리 굿즈 출시



구매문의 (주)더킹핀 070-4238-6768

달콤주주
GWANGJU · NAJU

광주와 나주의 디저트로 하루를 달콤하게 시작

13,000원
10,400원

담술목주
DAMYANG · MOKPO

담양과 목포를 담은 한 잔으로 피로를 날리며 하루를 마무리

15,000원
12,000원

01. 광주의 오월 이야기를 담은 우리밀 오월쿠키 | 02. 나주의 쌀과 배로 건강하게 만든 나주 배쌀빵 | 01. 담양 대일술이 들어간 약주 | 02. 목포 앞바다에서 잡아 말린 수제 쥐포 | 03. 청정 전남 바다의 김으로 만든 아몬드김스낵